

2026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성명	
전형	
수험번호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 : 6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이 분배적인 몫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제도의 체계를 수립하고 공평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정치적 조직이나 경제적·사회적 제도의 정의로운 체제를 포함하는 정의로운 기본 구조의 배경하에서만, 필수적인 정의로운 절차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공정한 기회 원칙의 역할은 협동의 체계가 순수 절차적 정의의 하나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조차도 분배적 정의를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순수 절차적 정의의 실용적인 이점은 무수히 많은 상황의 다양성과 특정 개인들의 변화하는 상대적 위치를 더 이상 일일이 추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세부 사항들과 관련이 있다면 발생하게 될 엄청난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나)

‘인재 선별기’가 된 대학을 뜯어고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면, 능력주의 체제가 그 폭력적 지배를 동시에 두 방향으로 뺏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정상에 올라서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안증, 강박적 완벽주의, 취약한 자부심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능력주의적 오만 등을 심는다. 한편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사기 저하와 함께, ‘나는 실패자야’라는 굴욕감마저 심는다.

이 쌍방향 폭력은 하나의 도덕적 원인을 공유한다. 능력주의의 금과옥조인 ‘우리는 개인으로서 우리 운명의 책임자다’라는 도덕률이다.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잘한 덕이며, 실패하면 우리가 잘못된 탓이다. 사기를 올려주는 말 같지만, 개인 책임에 대한 집요한 강조는 우리 시대의 불평등 상승 추세에 대응할 연대 의식이나 연대 책임을 떠올리기 어렵게 한다.

사회적 상승에만 집중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의 강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보다 사회적 상승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능력주의적 학력이 없는 사람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종종 기회의 평등의 유일 대안은 냉혹하고 억압적인 결과의 평등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또 다른 대안이 있다. 막대한 부를 쌓거나 빛나는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도 고상하고 존엄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조건적 평등’이다. 그것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일에서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하며, 널리 보급된 학습 문화를 공유하고, 동료 시민들과 공적 문제에 대해 숙의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

플라톤은 자신의 대표적 저서인 『국가』에서 이상적 공동체란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여 탁월하게 발휘하도록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는 절제의 미덕을 갖춘 사람에게는 생산에 힘쓸 수 있는 일자리를 배분하고, 용기의 미덕을 가진 사람에게는 국가를 수호할 일자리를 배분하며, 지혜의 미덕을 갖춘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배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출신 가문에 의해서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라)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업적과 기여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본다. 즉 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적은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적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간에는 성별, 건강, 재산, 종교, 사회적 계층 등 타고난 신체적·사회적 조건이 달라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 상태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여 그 성과를 분배받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다.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와 함께 사람들의 성취 동기를 높여 주고 사회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같은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자극시켜 준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적 부를 증진하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마)

평등한 접근권은 평등주의적 문제에 대한 평균주의적 해법이다. 수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성, 인종, 종교, 성적 성향, 사회 경제적 계층을 이유로 차별을 당해왔다. 그동안 이런 차별에 대해 보여온 우리의 반응은 기회균등의 정도를 평균적으로 균형 잡으려는 노력이었다. 한 그룹의 평균적인 사람이 교육적·직업적·법적·의료적 대우에서 다른 그룹의 평균적 사람과 비교해 다른 접근권을 가지게 될 경우 평균주의 사고에서는 그 평균적인 두 사람을 가능한 한 비슷해지게 만들려 노력해야 공정한 처사라고 간주한다. 이는 평균의 시대에서는 적절한 방식이었다. 표준화된 세계에서는 그런 방식이 불공정을 다루는 가능한 최선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평균적인 사람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며 기회의 평등한 접근권이라는 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평균적인 사람 같은 것이 없다면 평균적으로 평등한 기회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평등한 맞춤만이 평등한 기회의 밑거름이 된다.

(바)

스탕달의 『적과 흑』은 열아홉 살 찰리앵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자신의 출신 계급을 벗어나는 비상을 꿈꾸다가 스물세 살에 처형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적과 흑』의 배경이 되는 왕정복고 시대는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망명 귀족들이 다시 집권하여 옛날의 특권을 되찾던 시대이다. 찰리앵은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최후진술에서 계급 문제를 언급하고 사형을 언도 받는다. 다음은 그가 최후진술을 하는 대목이다.

“배심원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경멸을 받을까 두려워 발언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계급에 속하는 영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저는 자신의 비천한 운명에 반항한 농부일 뿐입니다.”

찰리앵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했다.

“저의 범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계획적이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의 죄가 더 가벼운 것일지라도, 제 젊음이 동정할 만하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고 도리어 저를 통해, 저와 같은 하층민으로 태어나 어떻게 보면 가난에 짓눌리면서도 운 좋게 좋은 교육을 받고 부유한 사람들의 오만이 사교계라고 부르는 곳에 대담하게 끼어들려 한 저 같은 하층계급 젊은이들의 용기를 영원히 꺾으려 하는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2026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인문계열

배심원 여러분, 그 점이 바로 저의 죄입니다. 그러니 저는 저와 같은 계급의 동료들로부터 판결을 받지 못하는 만큼 더 가혹하게 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의 눈에는 배심원석에 부유한 농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분개한 부르주아들만 보입니다…….”

[문제 1-1]

제시문 (가)~(마)를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요약한 뒤, 각 관점에서 제시문 (바)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50)자로 할 것.(20점)

[문제 1-2]

제시문 (가)~(마)와 관련된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논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50)자로 할 것.(30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빈곤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빈곤의 원인은 개개인의 능력 차이보다 사회 또는 지구 공동체의 구조적 체계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외 원조는 윤리적으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해외 원조는 의무의 영역인가, 자선의 영역인가? 해외 원조를 부유한 개인이나 국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보는 자선의 입장과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윤리적 의무의 입장이 있다.

노직	개인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 다른 개인이나 국가가 결코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 소유권을 지닙니다. 따라서 해외 원조의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며, 원조의 문제는 의무가 아닌 자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싱어	모든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윤리적 의무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민족, 인종, 국가에 관계없이 그들의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약소국에 대한 해외 원조는 의무이며,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분배가 필요합니다.
롤스	‘질서 정연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를 돕는 것은 의무입니다. 빈곤의 문제는 물질적 자원의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 제도의 결함 때문이므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

국제 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류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는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역량을 지닌 국가 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분쟁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도 상대국이 심각한 재해나 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국의 구호팀을 파견하거나 구호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원조는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한편 원조 공여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나 외교정책의 하나로 원조를 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기도 하고, 해외 자원의 확보와 같은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원조는 원조 수혜국의 주인의식이나 자립 능력을 약화하여 원조의 딜레마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원조 수혜국의 필요에 따라 적정 수준의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는 개발도상국 시민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지 경제 발전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인프라 건설부터 사법제도 연구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에 교육,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 주력해



원조하고 있다. 올해 캄보디아 ODA에 배정된 예산은 4352억 7100만 원이다.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사기 범죄 피해 실태가 알려지면서 현지 ODA 사업이 축소·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캄보디아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에서 한국인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원조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캄보디아 범죄 온라인 기사에는 ‘캄보디아 ODA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을 호구로 보는 나라에 무슨 ODA’ 등 댓글이 달렸다.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메콩강 개발 ODA 사업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ODA 축소론’의 근거가 됐다.

NGO 활동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해체 등으로 원조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ODA를 줄이면 캄보디아 사회 다방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인신매매 피해 지원 NGO 소속 활동가 A씨는 “ODA 예산 삭감은 취약 계층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ODA 기금은 의료, 보건, 식량 등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한다”라며 “원조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현지 NGO 활동가들이 줄어들면 주민 돌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A씨가 소속된 NGO는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법률 대리, 일상 회복 등을 돕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주의 프놈끄라움 마을에는 2007년 중·고등학교가 만들어졌다. 한국 NGO 로터스월드 수원시 ODA 예산과 종교기관·개인 후원금 등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없었던 이 마을에선 새 학교가 생기면서 약 50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현지인을 선생님이로 채용하면서 일자리도 생겼다. 그러나 캄보디아 범죄 단지 피해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이곳에 머물던 봉사단 17명은 한국으로 중도 귀국했고, 향후 파견 계획도 취소됐다. 박금호 로터스월드 국장은 “사무실에 ‘왜 범죄 국가를 도와주냐’라는 항의 전화도 걸려 왔다”라고 전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원조 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캄보디아 시스템이 교육이나 인프라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며 원조가 중단돼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조 사업이 진행되려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A씨는 “ODA 사업은 돈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정부 등 관련 기관 간 소통을 이어 나가며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한번 맥이 끊기면 사업 지속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폭행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작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2022년 1,789억 원, 2023년 1,805억 원, 2024년 2,178억 원, 2025년 4,353억 원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사망한 20대 한국 대학생의 시신조차 두 달 넘게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자, 막대한 ODA를 받는 캄보디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일고 있다.

우선 ODA가 추진되는 지역은 치안이 불안한 국가가 많은 만큼, ‘ODA·안전 연계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 공여국들은 자국민 안전을 ODA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 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에 “미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국가에는 어떠한 형태의 원조도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발생한 테러로 현지 ODA 프로젝트 요원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국제협력사업 안전대책회의’를 설치했다. 2021년 미얀마 군사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비인도적 분야의



2026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인문계열

신규 ODA를 중단하는 등 원조 집행 기준을 강화했다. 호주와 프랑스도 자국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원조를 일시 중단하거나 치안 중심 사업으로 재편하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 중인 나라에서도 ‘프런티어 정신’에 입각해 위험을 무릅쓰고 ODA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수혜국의 자국민 보호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선 신규 사업 승인 단계서부터 치안·안전 평가 항목을 추가해 위험 요소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능력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 ODA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다.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 주는 국가’로 바뀌었다고 자랑하면서 원조액을 마냥 늘릴 일이 아니다. 2024년도 한국의 ODA 지원액은 39억 4,000만 달러(약 5조 6,000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4.8%(7억 8,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21%로 처음으로 0.2%를 넘어섰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0.32%)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고 남북한 대치로 방위비를 많이 써야 하는 한국의 처지에서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은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 2-1]

제시문 (가)의 해외 원조를 자선 또는 의무로 보는 노직, 싱어, 롤스의 주장을 제시문 (나)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50)로 할 것.(25점)

[문제 2-2]

제시문 (나)의 해외 원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또는 (라)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캄보디아 ODA 논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50)로 할 것.(25점)

2026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모범답안





[문제 1]

[문제 1-1]

(가), (나), (마)는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 조건의 평등, 맞춤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반면 (다), (라)는 개인의 능력·덕성·업적에 비례한 지위의 배분과 보상의 분배가 정당하다고 보며, 각자의 능력과 소질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바)에 적용해 본다면, (가), (나), (다)의 관점에서는 질리앵이 신분에 의해 조건의 불평등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계급적 편향이 절차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다), (라)의 관점에서는 신분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질리앵이 개인적인 능력과 소질을 실현하기 어려웠기에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없었고 과실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408자)

[문제1-2]

현대 사회는 계급이나 신분에 따른 제약은 사라지고 개인의 재능과 성취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출발선의 격차와 구조적 장벽을 간과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나)가 말하듯 능력주의는 승자에게는 불안증과 오만을, 패자에게는 굴욕감과 사기 저하를 낳아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킨다. 능력과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며, 평균주의적 기준에 의해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낳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과 채용 과정에서 배경에서 오는 차별과 격차를 줄이는 기회 균등 정책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선발과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층과 업적을 쌓을 시간이 적은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구조적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조화를 동시에 이루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541자)

[문제 2]

[문제 2-1]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외 원조는 인류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심각한 재해나 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해외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 원조는 부유한 개인이나 국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선이기보다는 글로벌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윤리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하는 노직의 주장은 지원이 필요한 국가의 처지를 간과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해외 원조를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분배를 촉진하는 윤리적 의무로 규정하는 싱어에 따르면,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롤스도 해외 원조를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정치·사회 제도에 결함이 있는 ‘고통받는 사회’를 돕는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427자)

[문제 2-2]

제시문 (다) 선택

제시문 (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해외 원조를 국제 사회의 윤리적 의무로 간주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에 협조하든 협조하지 않든 우리가 약속한 ODA가 지속되어야 한다. 만약 의료, 보건, 식량 등에 대한 ODA를 축소하거나 중단된다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와 전혀 관계없는 무고한 지역 주민과 취약 계층 주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을 지원하는 ODA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 범죄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ODA 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해 그동안 이룩한 성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407자)

제시문 (라) 선택

제시문 (라)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국가에 대한 ODA는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은 물론 범죄 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승인 단계서부터 치안·안전 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위험 요소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ODA 규모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남북한 대치로 방위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ODA 규모는 감축되어야 한다.(414자)

2026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채점기준





[문제 1]

- [문제 1-1] 제시문 (가)~(마)를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요약한 뒤, 각 관점에서 제시문 (바)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50)자로 할 것.(20점)
- [문제 1-2] 제시문 (가)~(마)와 관련된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논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50)자로 할 것.(30점)

1. 출제의도

- [문제 1-1] 내용의 사실적 이해 능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고자 함.
- [문제 1-2] 심층적인 사고력과 논리적 구성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2. 세부 지침

- [1-1]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분석----- 20점
- ① (가), (나), (마)는 불평등의 조정을 위해 절차적 공정성, 조건의 평등, 맞춤의 평등과 같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으로 요약(5점)
 - ② (다), (라)는 사회적 역할의 배분과 보상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요약(5점)
 - ③ (바)에 대해 (가), (나), (마)의 관점에서 제도와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5점)
 - ④ (바)에 대해 (다), (라)의 관점에서 개인의 능력이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5점)

- [1-2] 제시문과 관련된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서술----- 30점
- ① 제시문 중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적절히 활용(5점)
 - ② 제시문의 내용과 현대 사회의 문제점 연결이 잘 나타남(5점)
 - ③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교육, 입시, 채용 등과 같은 분야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논함(5점)
 - ④ 자신이 제시한 문제점에 맞추어, 교육, 입시, 채용 과정에 필요한 기회 균등이나 절차의 투명성 등과 같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적절히 제시함(10점)
 - ⑤ 논지가 분명하고 논리 전개가 타당하며 표현이 정확함.(5점)

※ 감점 사항

- ① 분량 미달과 초과 : 5점 감점
- ②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 자료 출처



2026학년도 인문계열 채점기준

인문계열

-
- (가) 존 롤즈, 『정의론』, 이학사, 2003.
 - (나) 마이클 샌델, 『공정이라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 (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 (라) 고등학교 『통합사회』
 - (마) 토드 로즈, 『평균의 종말』, 21세기북스, 2015.
 - (바) 스탕달, 『적과 흑』, 문학동네, 2010.



[문제 2]

- [문제 2-1]** 제시문 (가)의 해외 원조를 자선 또는 의무로 보는 노직, 싱어, 롤스의 주장을 제시문 (나)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50)로 할 것.(25점)
- [문제 2-2]** 제시문 (나)의 해외 원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또는 (라)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캄보디아 ODA 논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50)로 할 것.(25점)

1. 출제의도

- [문제 2-1] 개념과 주장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문제 2-2] 개념과 주장을 사례 분석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2. 세부 지침

- [2-1]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노직, 싱어, 롤스의 주장을 (나)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20점
- 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부유한 개인이나 국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선이기보다는 윤리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5점)
 - ② 해외 원조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는 노직의 주장은 지원이 필요한 국가의 처지를 간과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5점)
 - ③ 싱어는 해외 원조를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분배를 촉진하는 윤리적 의무로 평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5점)
 - ④ 롤스가 해외 원조를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정치·사회 제도에 결함이 있는 ‘고통받는 사회’를 돕는 의무로 주장한다는 점을 지적(5점)

제시문 (다) 선택

- [2-2] 제시문 (나)의 인도주의적 관점을 제시문 (다)의 캄보디아 ODA 지원 주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20점
- 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원조는 국제 사회의 윤리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협조하든 협조하지 않든지 간에 캄보디아에 대한 ODA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적(5점)
 - ② 만약 의료, 보건, 식량 등에 대한 ODA를 축소하거나 중단된다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와 전혀 관계없는 무고한 지역 주민과 취약 계층 주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적(5점)
 - ③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을 지원하는 ODA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 범죄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적(5점)
 - ④ ODA 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



조를 통해 그동안 이룩한 성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적(5점)

제시문 (라) 선택

[2-2] 제시문 (나)의 국가이익의 관점을 제시문 (라)의 캄보디아 ODA 축소·중단 주장에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 20점

- ① 해외 원조를 외교정책의 수단이기에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은 물론 범죄 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ODA는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적(5점)
- ②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승인 단계서부터 치안·안전 평가 항목을 평가하는 위험 요소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적(5점)
- ③ 남북한 대치로 방위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지적(5점)
- ④ ODA 규모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ODA 규모는 감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적 (5점)

※ 감점 사항

- ㉠ 분량 미달과 초과 : 5점 감점
- ㉡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된 경우 :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 자료 출처

- (가) 『생활과 윤리』(금성출판사), p.210.
- (나) 『생활과 윤리』(천재교과서), p.212.
- (다) 이강국, 「"이러니 한국이 봉이지"...4000억 혈세 캄보디아 퍼줬다」, 『주간조선』 (2025.10.26.)
- (라) 윤기은, 최경윤, 「범죄 피해·김건희 비리 의혹, 위기의 '캄보디아 ODA'...“끊기면 빈곤층부터 타격”」 『경향신문』 (2025.10.27.)